

해외동포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애국애족의 자양분

어머니조국과 한민족을 잊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 이것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받아안은 고귀한 호칭이다. 세상에는 해외동포들이 많고도 많고 공화국의 해외동포들처럼 이렇듯 뜨거운 혈연의 정이 넘쳐흐르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의 첫아침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함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따듯이 불러주시었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수령과 조국을 옹위하고 총련조직을 사수하며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나가는 재일동포들이 받아안은 값높은 이 믿음.

함축의 그 세월 《침묵한 개에 조선사람 한명》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죽음의 유령이 배회하는 살인교역장에서 사람값에 들지 못하던 력사의 수난자들이 바로 재일동포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이역의 한식솔로 된 그들이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니 그들이 받아안은 감격은 이루 다 말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결어은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못맛을 로정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진다.

감격의 새로운 주제101(2012)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주시어 대회를 재일조선인운동사에 길이 남을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이 력사적인 첫 축전은 새로운 주제10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령적 지침, 필승의 보검이었다.

동포사회는 뜨거운 감격의 파도로 설레이었다.

이듬해인 주제102(2013)년 1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 장에게 보내주신 새해축전은 또 얼마나 동포들의 심금을 새치게 울리었던가.

나는 수령님께서 무어주시고 장관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총련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의 믿음을 받아안은 동포들의 가슴은 맹세로 높 뛰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마다 총련에 뜻깊은 새해 축전을 보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 시던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키나 가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주제103(2014)년 5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해 5월 결성 60돐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4 차 전체대회 (2018년 5월)

맞는 총련에 강령적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 서한은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떠밀어주는 강력한 추동력, 애국애족의 자양분으로 되었다.

주제105(2016)년 4월에 총련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으며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나 축전을 보내주시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굳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대해같은 사랑과 정

가까이 있어야 정이 두터워진다. 하지만 세월의 언덕을 넘어 이역만리에서 멀리 있어도, 기쁨 때에도 피

로울 때에도 따스하게 비추는 위대한 태양의 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과 재중동포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정은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1년 12월, 위대한 장관님과 영결하는 행사에 해외동포 조의방문단 성원들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불러주시어 자신의 가까이에서 서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책임일군을 중앙추도대회의 주석단에 내세워주시고 추도행사가 끝난 뒤에는 해외동포방문단 성원들을 위한 위로연까지 베풀어



대양절을 뜻깊게 맞이한 재중동포들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제63회 졸업생들 (2021년 3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세인을 감동시켰다.

얼마나 많은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으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수훈자,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 로력영웅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판에 받들려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 조비와 장학금의 력사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활짝 꽃피우며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보살핌속에서 재일조선학생들이 해마다 평양의 설맞이공연무대에 올라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랑을 마음껏 노래부르고 조국에서의 수확여행과 실습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며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났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애국운동의 나팔수로 자랑떨쳐가는 총련과 재중동포예술인들을 대견하게 여기시어 평양의 화려한 무대에도 세워주시고 값높은 명예칭호도 안겨주시며 보람찬 예술창조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총은 주제적해외교포예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해외동포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따듯이 품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잘 알고있기에 해외동포들은 그의 령도따라 변함없는 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언제나 남북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주제55(1966)년 여름이였다.

어느날 회의준비로 늦게까지 집무를 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이 더 난다고,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라고 절절히 고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전쟁때 서울에 나가보았는데 참 감회가 깊었다고, 전쟁이니 만치 나는 그때 서울동포들에게 인사의 말도 한 번 못했다고 추억을 더듬 으시며 고시하시었다.

이때 한 일군이 해방직후 서울사람들은 역전광장에 모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 갈리신 음성으로 그런 말을 나도 들었다고,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와 남남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깊어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분계선일대의 어느 한 마을을 찾으신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유정한 달빛이 흐르는데 남쪽의 숲속에서 소쩍새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위대한 장관님께서 한 동안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산에서 싸우실 때 소쩍새가 울면 일제의 총칼 밑에서 신음하는 조국동포들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고시하시었다.

본사기자

세련된 성취예술, 찬란의 목소리 (2)

노래와 현실이 꼭갈다

주제109(2020)년 8월 공화국의 은파군 군당청사에서 어느때의 정숙한 분위기는 간웃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귀여운 목소리들이 흘러 나왔다.

군안의 크고작은 일들이 논의되는 이 청사에서 큰 물에 집을 났고 재난을 당한 인민들이 누구나 제 집에 온듯 편안한 모습으로 지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반면에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띄약별이 내려쬐이고 열풍이 휘몰아치는 야외의 천막으로 옮겨가 일하였다.

인민들이 단 하루도 한지에서 생활하지 않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취해 주신 사랑의 조치였다.

세상에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어느 한 해외동포녀성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였다.

《조선인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조선에 펼쳐진 현실이 이 노래와 꼭갈다. 물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지만 모든것을 휩쓸어가는 큰물도 조국인민에게서 웃음만큼은 휩쓸어가지 못하였다.》



하느님의 하느님

주제109(2020)년 9월 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로동당원들로 무어진 2개 사단규모의 골골한 대오가 큰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로 급파되었다.

골골이 놀라운 이 현실을 TV로 보고 어느 한 인터넷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하느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쫓겨 땅고말았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굳게 믿었고 령도자는 하늘의 그 어떤 조화도 다스려 인민에게 훌륭한 새집, 새 마을을 안겨주었다. 조선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하느님의 하느님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정치리념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을 하느님이라고 더없이 귀중한 존재이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새겨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고 위하려는것이 원수님의 진정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 내놓으시는 하나하나의 사상과 리론도 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데로 일관되고 지향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신의 정치리념, 최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신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다.

주제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을 수령님께서 장관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을 하느님처럼 여기고 인

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호소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관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관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관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인민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보시기에,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처럼 굳건하고 강렬하시기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을 더욱 숭고한 경지로 승화발전시키시는데는 것이다.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축복이 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천하제일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웅진한 뜻과 불같은 열망이 력력히 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계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느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는 고전적정식화를 하시었다.

진정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을 지니신 인민의 령도자이시기에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한마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명명하시었다.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강그려 불태워나가 려고 한다.

김석벽

